

韓國製造企業의 海外直接投資

— 競争優位의 源泉을 中心으로 —

金炳淳*

目 次

- I. 研究의 目的 및 方法
- II. 概念의 定義
- III. 海外直接投資理論에서 본 競争優位 決定要因
- IV. 韓國海外直接投資企業의 競争優位에 관한 事例分析
- V. 韓國海外直接投資企業의 競争優位要因에 관한 差異分析
- VI. 結 言

I. 研究의 目的 및 方法

本研究는 1986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韓國企業의 해외직접투자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서는 새로운 理論的 接近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시작된다. 1980년대에 들어서 부터 다양하
게 展開되기 시작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量的인 伸張 못지 않게 몇 가지 특징적 현
상 때문에 주목을 끌고 있다. 韓國製造企業의 海外直接投資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은,
①선진국(특히 北美에 집중)에 대한 投資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②東南亞등 일부 지역으
로 投資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 ③섬유·신발產業, 家電產業 등 일부 產業에서 대다수의 투
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④일부 大型 Project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中小企業型 투자라는

* 本研究所 研究員, 經商大學 經營學科 副教授

產業研究

점, ⑤投資比率이 50% 이하인 合作投資가 증가하고 있는 점, ⑥1986년 이후 投資가 급증하고 있는 점, ⑦投資撤收 事例도 점증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와 같은 特徵的 현상을 기준의 海外直接投資理論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더닝 (J. H. Dunning)이 1976년 노벨심포지움에서 처음으로 제시했던 折衷的패러다임은 海外直接投資現象에 대한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 즉 企業이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動機는 무엇이며, 해외직접투자를 가능케 하는 競爭優位의 源泉은 무엇이고, 국제경영활동의 여러 형태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海外直接投資를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折衷的패러다임은 開途國企業의 해외직접투자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게 적용되어 았다. 웰스(L. T. Wells, Jr.)는 折衷的 패러다임에 따라 개도국기업의 海外直接投資事例를 꽤 넓게 분석하였으며, 韓國企業의 해외직접투자현상을 折衷理論에 따라 분석하고 있는 연구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開途國企業의 對선진국 투자현상이나 투자대상지역의 偏重性, 특정산업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투자의 집중현상 등은 折衷理論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러한 특징적 현상을 설명하면서 海外直接投資現象에 대한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에 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競爭優位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定義하고 이를 바탕으로 競爭優位의 창출과 소멸과정을 分析해 보아야 한다.

海外直接投資現象을 설명함에 있어 既存 理論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海外直接投資의 필요조건인 기업특유의 독점적 우위 (Monopolistic Advantage) 또는 경쟁우위 (Competitive Advantage)를 배타적이며 절대적인 우위로 定義하고 있어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또한 경쟁우위의 源泉도 생산, 마아케팅, 재무 등의 분야의 특정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둘째, 既存의 海外直接投資理論은 해외직접투자현상을 기업차원 또는 국가차원의 어느 한 편에 치우쳐 파악하고 있다. 多國籍企業의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고 있는 기존이론들은 기업특유의 독점적 우위요소를 규명하는 데에 치중하여 왔다. 반면에 해외직접투자의 파급효과와 規範性을 강조하는 이론들은 比較優位 (Comparative Advantage)의 변화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企業特有의 우위요소와 國家特有的 우위요소는 독립적인 별개의 요소이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기업이 누리는 競爭優位의 상태를 本源的으로 파악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두 次元의 우위요소가 독립적이 아니라 相互

補完的인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既存理論은 海外直接投資를 경쟁우위의 획득 결과로서만 파악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를 선진국 다국적기업들만의 전유물로 간주하였던 것도 이러한 논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競爭優位要素는 부단히 창출되어 소멸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이러한 과정에서企業의 경쟁우위도 動態的으로 변화한다. 따라서企業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도, 상실되어 가는 경쟁우위를 유지·보완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既存理論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競爭優位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再定義하여야 한다. 本稿는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쟁우위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는『競爭優位의 틀』을 구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러한 틀 속에서 韓國企業의 해외직접투자현상을 설명하고 경쟁우위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本研究의 目的이 있다.

本研究는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중에서 製造業 投資만을 대상으로 既存理論의 설명력을 살펴본 후에, 事例分析方法을 통해 韓國 해외직접투자기업이 누리고 있는 경쟁우위의 내용과 경쟁우위요소가 무엇인지를 분석·검토하였다. 이러한 分析을 바탕으로 投資對象國別, 投資產業別로 경쟁우위요소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設問紙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統計的으로 分析하여 事例分析 内容을 보완하였다.

II. 개념의 정의

1. 海外直接投資의 개념

海外直接投資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류해 보면, ①經營權의 確保, ②經營資源의 複合的移轉, ③企業目標와 관련된 戰略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요소의 내용과 상호관련성을 살펴본 후에, 本稿에서 사용할 海外直接投資의 개념을 定義하기로 하겠다.

첫째로 經營權 確保의 문제는 해외직접투자가 단순한 자본이동이 아니라 기업경영상의 統制權을 수반하는 자본이동이어야 함을 뜻한다.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느냐는 흔히 持分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50%를 초과하는 持分率을 갖고서도 經營支配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10%의 지분율로도 실질적인 經營統制를 하는 경우가 있어 외관상의 지분율과 실질적인 경영통제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經營權의 확보여부는 주식의 분산정도, 지분율 이외의 방법으로 획득한 실질적인 통제권 등에 입각해 판단하여야하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經營權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海外直接投資는 단순한 자본이동이 아니라 諸般 經營資源의 복합적 이전이라는 점이다. 경영자원은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資金, 生產技術, 마케팅技法, 정보수집능력, 경영관리능력이나 경험, 시장에서의 지위 등을 말하며, 이러한 경영자원이 축척되어 企業特有의 競爭優位 (Competitive Advantage) 가創出된다. 해외직접투자는 企業特有의 경쟁우위를 활용하거나 補完・強化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영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끝으로, 해외직접투자는 企業目標와 관련된 전략이라는 점이다. 기업의 목표는 企業의 정의나 기능 및 환경과의 관련 속에서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개념이다. 기업목표를 經營成果와 관련 시켜 볼 경우, 기업목표는 크게 成長과 安定으로 나눌 수 있다. 海外直接投資는 이러한 기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内部能力과 外部環境에 대한 평가여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이라 하겠다. 따라서 世界戰略 (global strategy) 에 입각하여 기업 전체로서 利潤極大化를 추구하는 多國籍企業만이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과 같은 海外直接投資의 概念構成要素에 따라, 本稿에서는 해외직접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海外直接投資는 실질적인 經營權을 행사할 목적하에 諸般 經營資源을 해외에 이전하여 競爭優位를 창출・유지함으로써 企業目標를 달성하려는 狀況適應의 經營戰略이다.”

2. 競爭優位의 定義

국제무역이나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國家特有의 比較優位 (Competitive Advantage) 와 企業特有의 獨占的優位 (Monopolistic Advantage) 를 분리・독립

적인 것으로 보고, 한쪽 측면에만 치우쳐 우위의 원천을 규명하는 데에 치중하여 왔다. 이에 따라 국가특유의 比較優位와 기업특유의 獨占的優位를 결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려는 데에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企業特有의 독점적우위가 무역이나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용어가 아니라는 사실은 開途國企業의 국제경영활동에서 현상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발라사 (B. Balassa) 는 기업차원의 독점적우위가 美國의 무역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설명력을 갖지만, 開途國의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 이유는 기업특유의 독점적우위를 나타내는 주요 說明變數인 연구개발 (R&D) 투자나 축적된 기술적 자산 등이 개도국의 경우엔 극히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海外直接投資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하이머 (S. Hymer) 의 獨占的優位理論에서 더닝의 折衷理論에 이르기 까지 주요 해외직접투자이론들은 기업특유의 독점적우위를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독점적우위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開途國企業들도 해외직접투자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상황이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 신흥공업국들의 국제경쟁력이 급속히 강화되고 해외직접투자 또한 급증하면서, 企業特有의 독점적우위가 開途國의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데에는 적합한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후로 기업특유의 競爭優位라는 개념이 독점적우위와 더불어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두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특유의 경쟁우위와 독점적 우위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독점적 우위는 배차적으로 누릴 수 있는 絶對的인 우위임에 비해 경쟁우위는 공유할 수 있는 相對的인 우위라는 점이다.

둘째, 독점적 우위는 個別企業의 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는 개념임에 반하여 경쟁우위는 產業次元에서 형성된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차원에서 형성된 우위라는 점이다.

셋째, 경쟁우위는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企業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상에서 해외직접투자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獨占的優位 보다 競爭優位의 개념이 보다 적합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開途國의 해외직접투자가 과거와는 다른 패턴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해외직접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競爭優位의 源泉 또한 급변하고 있기 때-

문이다.

本稿에서는 경쟁우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競爭優位는 海外直接投資企業이 현지사업활동에 따르는 제반 불리한 점을 극복함으로써 현지 또는 해외의 競爭企業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企業能力으로, 현지의 比較優位要要素와 진출기업특유의 競爭優位要要素가 결합되어 창출되는 動態的인 성격의 企業能力이다.”

III. 海外直接投資理論에서 본 競爭優位 決定要因

1. 先進國 多國籍企業의 競爭優位

해외직접투자이론에 獨占的 優位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것은 하이머 (S. Hymer) 였다. 이러한 독점적우위이론은 킨들버거 (C. P. Kindleberger), 케이브스 (R. E. Caves)로 이어져 발전하였다. 킨들버거는 독점적 우위요인으로 ①제품차별화 능력, ②마아케팅 技術, ③독점적인 技術, ④자본조달상의 우위 등을 들었으며, 케이브스는 ①無形의 資產, ②技術能力, ③製品差別化能力, ④마아케팅 能力, ⑤經營技法 및 能力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후드와 영 (N. Hood and S. Young)은 경쟁우위의 요인을 ①기술적 우위, ②寡占的 產業組織에 따른 우위, ③재무 및 화폐적 우위, ④資源에 대한 接近의 용이성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요인별로 여러가지의 優位要要素를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 競爭優位要因이 제시되었지만 표현이나 분류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인 優位要要素 内容의 차이는 없다고 하겠다. 더닝은 折衷理論을 제시하면서 競爭優位要要素를 網羅的으로 제시하였으나, 다수의 우위요소들을 가지고는 實證分析이 불가능하여 理論定立이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2. 開途國企業의 競爭優位

개도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理論들은 競爭優位의 원천을 주로 변형된 생산기술이나 마아케팅技法에서 찾고 있다. 이들 理論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쟁우위요소

들은 ①開途國에 적합한 기술, ②現地에 적합한 제품차별화 능력, ③非差別化 제품의 마아케팅技法, ④現地에 적합한 經營技法, ⑤본사에서 파견한 경영자 및 기술자의 낮은 임금, ⑥投資對象國과의 언어·문화적인 유대감, ⑦본사가 누리고 있는 自國에서의 영향력 및 제반능력, ⑧투자대상국의 외국인투자 우대정책 등이다. 그러면 개도국기업의 경쟁우위요소와 先進國 다국적기업의 경쟁우위요소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차이는 海外進出企業을 巨大多國籍企業만으로 생각하였던 既存理論의 편향적인 시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競爭優位는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우위요소는 창출되어 소멸하는 순환의 과정을 반복한다. 따라서 開途國企業도 상대적인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으며,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도 지속적인 독점적우위를 누리는 경우는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3. 既存理論의 意義와 限界

하이머의 獨占的優位理論에서 시작된 해외직접투자이론은 内部化理論을 거쳐 折衷理論에 이르러서야 理論이 통합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 많은 理論들이 제시되었지만 대부분 특정시기에 특정국가의 특정산업이나 기업에서 발생하는 해외직접투자현상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통합이론으로 평가되는 더닝의 折衷理論에 대하여도 그간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주요 비판들의 촛점을, ①국제생산활동을 설명하는데에 競爭優位(또는 所有優位)가 필요하냐는 점, ②절충이론은 국제생산에 관한 一般理論이냐 特殊理論이냐 하는 점, ③절충패러다임으로企業特有의 행위적 차이를 설명할 수 없지 않느냐는 점, ④절충이론은 미시기업이론적 접근에 치우쳐 거시경제적 관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⑤다국적기업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절충패러다임 보다 통화지역의 차이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더닝의 이론은 유용하면서도 강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模型의 발전과 확장가능성은 많다고 하겠다. 더닝은 模型의 발전방향으로 ①折衷패러다임의 정규 모형화, ②국제생산에 관한 動態的이고 발전적인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화, ③국제경제활동의 다양한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모형화, ④意思決定의 과정과 존재위치에 관한 모형화, ⑤다국적기업의 투자철수 및 영향에 관한 이론적 모형화 등을 제시하였다.

產 業 研 究

더닝이 제시한 模型의 발전방향은 既存理論의 한계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折衷理論이 기존의 주요 이론을 결합하여 이루어졌지만, 모형의 수정·보완으로 아직까지 해외직접투자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유용하고도 설득력 있는 分析의 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折衷理論을 비롯하여 그간에 제시된 주요 理論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企業特有의 競爭優位를 독점적우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海外直接投資를 다국적기업의 전유물로 보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開途國企業의 해외직접투자현상 등을 볼 때에 이러한 理論的接近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競爭優位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경쟁우위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는『경쟁우위의 틀』을 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직접투자현상에 대한 세 가지 문제, 즉 투자의 동기, 경쟁우위의 원천 및 해외직접투자를 선택한 이유 등에 대하여 선택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企業의 海外直接投資動機와 경쟁우위의 원천 및 해외직접투자를 선택한 이유는 競爭優位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복합적인 작용을 한다. 따라서 各要因別 경쟁우위요소를 결합하여 全社의 차원에서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거나 또는 새로운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海外直接投資는 이루어진다. 반면에 경쟁우위가 상실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경쟁우위요소를 창출하던지 아니면 投資撤收가 일어난다.

셋째, 海外直接投資의 방향을 下向的으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既存理論은 投資方向을 선진국에서 선진국 또는 개도국으로 보고 있다. 또한 開途國企業의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려는 이론들도 투자방향이 先發開途國에서 後發開途國이라고 본다. 이러한 投資方向으로는 기존의 경쟁우위요소를 활용하여 경쟁우위의 상태를 향유하는 競爭優位活用型의 해외직접투자만 가능하다. 그러나 投資方向이 과거와는 달리 수평적으로 때로는 上向的으로도 이루어지는 등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投資패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海外直接投資가 경쟁우위의 획득결과로서도 일어나지만, 경쟁우위를 창출 또는 유지·보완하기 위해서도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IV. 韓國海外直接投資企業의 競爭優位에 관한 事例分析

1. 事例研究의 必要性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實證的 分析은 주로 事例分析에 의존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開途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들 企業이 보유하고 있는 競爭優位의 源泉과 投資의 動機 및 海外直接投資의 선택이유 등을 사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연구방법의 주류를 이루었다. 事例研究에 대해 한정된 타당성 밖에 갖지 못한다는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事例分析은 특정상황을 설명하는데 있어 유용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事例研究方法으로도 統計的 分析方法 못지 않게 예측능력이 우수한 이론을 개발할 수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특히 통계자료가 부족하고 量的분석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개별산업이나 기업의 경쟁우위요소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사례분석방법은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企業의 海外直接投資, 특히 開途國企業의 해외직접투자현상을 연구함에 있어 量的인 실증분석이 어려운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유에 기인한다.

첫째, 開途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統計資料의 부족이다. 해외직접투자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各國의 정의가 달라 投資實績에 차이가 클뿐만 아니라 統計作成上에서도 項目分類에 따라 천차만별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比較分析에 필요한 資料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 開途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가 간헐적이면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一般化를 위한 이론적 접근이 어려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韓國製造企業의 해외직접투자를 產業別로 나누어 各產業別로 주요 기업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1〉참조.) 사례의 내용분석은 折衷패러다임에 따라 投資의 動機, 경쟁우위의 원천, 해외직접투자의 선택이유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함에 있어 折衷的 틀은 有用한 분석수단이지만, 그 설명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本稿에서는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動機要因, 競爭優位의 源泉, 立地優位要因 등을 종합한 競爭優位의 정의를 바탕으로 경쟁우위의 주요 결정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產業研究

分析對象 事例의 現況

(표 1)

전수	산업	음·식	섬유	목재	종이	석유	비금속	1차	조립	기타	총계
	료품	신발		인쇄	화학	광물	금속	금속	제조		
투자건수	6	53	6	1	10	6	8	46	8	144	
1. 개도국	5	45	4	—	9	6	4	28	6	107	
2. 선진국	1	8	2	1	1	—	4	18	2	37	
사례기업수	4	37	5	1	8	6	6	14	7	88	
	(2)	(16)	(1)		(2)		(2)	(32)	(1)	(56)	

* 주 : 1) 개도국, 선진국 구분은 OECD에서 사용한 분류기준에 따름.

2) ()안은 同一社會에서 투자한 건수로, 例를 들어 조립금속의 경우 삼성전자 17건, 금성사 11건, 대우 6건은 각각 한 기업의 事例로 計上함.

2. 產業別 海外直接投資 事例分析 및 撤收事例의 檢討

本稿에서 진행할 事例分析過程은 미원(味元) 및 삼양식품(三星)의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사례분석방법은 餘他의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체 사례의 분석결과를 “해외직접투자기업의 경쟁우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역할”이라는 표에서 종합하였다.

(1) 事例分析節次 및 結果

1990년말 현재 음·식료품產業의 해외직접투자건수는 총 22건으로, 本研究는 이 중에서 6건(기업수로는 4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한국 최초의 製造業 海外直接投資인 미원(味元)의 인도네시아 調味料製造를 위한 合作事業은 1989년말에 인도네시아 시장점유율이 40%에 이를 만큼 성공적인 사례였다. 미원(味元)은 1973년 당시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던 미풍과의 극심한 경쟁을 회피하면서, 조미료의 主原料인 당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現地市場도 개척하겠다는 전략적인 동기에서 海外直接投資를 실행하였다. 당시 미원(味元)의 기술수준은 인도네시아 조미료市場을 석권하고 있던 日本의 아지노모도社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은 인도네시아 조미료市場을 관리자들의 노력으로 市場占有率을 적극적인 販促活動과 다양한 製品差別化政策 및 현지화관련 관리자들의 노력으로 市場占

有率을 높여 나갈 수 있었다. 최근 들어 미원(米原)은 최대경쟁자인 아지노모도社와의 競爭에서 확고한 競爭優位를 유지하기 위해 더불어 미원그룹의 이미지도 보다 강화하기 위해, 1989년에 신규공장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또다시 실시하였다. 이 事例에서 도출되는 제반 우위요소들은 미원(米原)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각各 競爭優位의 源泉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競爭優位要素들을 결합하여 미원(米原)이 현재 누리고 있는『競爭優位의 틀』을 형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우선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 미원(米原)의 해외직접투자를 기준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미원(米原)이 최초로 해외직접투자를 실시한 1970년대 초반에 해외직접투자이론의主流를 형성한 것은 하이머(S. Hymer)의 독점적우위이론이었다. 당시 미원(米原)은 인도네시아의 경쟁기업에 비해 생산기술이나 마아케팅 측면에서 獨占的 優位要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따라서 内部市場을 창조할 만한 동기, 즉 内部化의 利益도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 開途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현상을 설명하려는 理論의主流는 웰스(L.T. Wells)의 折衷的 接近方法과 고지마(K. Kojima)의 限界產業進出論이라고 볼 수 있다. 웰스가 제시하고 있는 開途國企業의 경쟁우위요소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開途國 실정에 적합하도록 개조된 소규모 생산방식의 기술이라는 경쟁우위요소로는 미원(米原)의 사례를 설명하기 어렵다. 고지마의 限界產業進出論으로 설명하기는 더욱 곤란하다. 따라서 既存理論으로 미원(米原)의 해외직접투자현상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② 미원(米原)의 海外直接投資를 설명할 수 있는 경쟁우위의 源泉들은 무엇인가?

⇒ 미원(米原)은 조미료의 주원료인 당밀의 안정적 확보라는 戰略的 動機 이외에는 海外直接投資를 할 만한 특별한 경쟁우위요소나 이유가 없었다. 미원(米原)으로서는 國內工場에 당밀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도 성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밀의 공급은 輸入에 의해 서도 가능하며 또한 海外事業의 실패는 本社에 까지 심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資源確保動機만으로 미원(米原)의 해외직접투자현상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미원(米原)의 海外直接投資는 現地國의 立地優位要素(당밀資源이 풍부)에 자원 확보라는 기업의 전략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였으며, 企業特有의 경쟁우위요소(적극적으로 개발하여 現地市場을 개척한다는 장기적인 관점) 역시 전략적 동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產業研究

③ 미원(未)이 競爭優位를 누릴 수 있는 源泉과 競爭優位의 創出過程은 어떠한가?

⇒ 미원(未)은 적극적인 마아케팅활동으로 현지 경쟁기업보다 강한 企業特有의 경쟁우위요소를 한 가지 획득하였으며, 생산 및 기술관련 능력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기술개발노력으로 현지 경쟁기업보다 별로 뒤지지 않는 생산 및 공정기술을 보유하게 되었고, 더불어 本社와 현지법인과의 수직적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統合시스템차원에서 생산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우위요소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海外直接投資企業의 競爭優位는 투자동기, 기업특유의 경쟁우위요소, 현지국 특유의 입지우위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각 우위요소들이 競爭優位의 源泉으로 작용하는 역할의 중요성에는 차이가 있다. 미원(未)의 경우 投資動機중에서는 전략적 동기가 경쟁우위의 動因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쟁우위요소 중에서는 마아케팅관련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지국 특유의 입지우위요소 중에서는 현지국이 보유하고 있는 당밀資源의 활용가능성이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에, 기타 현지국관련 立地優位要素는 競爭優位의 源泉으로서 작용은 하지만 그 역할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하겠다.

이상을 종합하면 미원(未)의 海外直接投資는 既存理論으로 설명하기가 곤란하나, 競爭優位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의하면 설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원(未)의 해외직접투자는 제반 優位要素들이 動機化 過程에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결정된 것이다.

음·식료품產業의 海外直接投資 가운데 삼양식품(未)의 사례도 성공적인 투자로 평가되고 있다. 미원(未)과는 달리 삼양식품(未)의 투자대상지역은 미국이었다. 開途國企業의 對선진국 투자는 기존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逆投資 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삼양식품(未)이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작용한 우위요소와 同社가 경쟁우위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삼양식품(未)의 라면製造를 위한 美國投資는 기존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逆投資 現象이다. 既存 理論들은 개도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방향을 여타 開途國이나 後進國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삼양식품(未)은 기업특유의 獨占의 優位要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對선진국 투자를 실행한 것인가? 1980년 海外直接投資를 할 당시에 삼양식품(未)의 기술수준은 미국에 既進出한 日本企業 보다 나을 수 없었다. 同社는 美國市場의 수요와 Market Niche를

파악한 후, 國內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販促活動을 벌린 결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삼양식품(株)의 경우 몇 가지 企業特有의 경쟁우위 요소가 投資動機要因 및 現地國特有의 입지우위요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독점적 우위요소는 없었지만 미국시장에서 경쟁해 볼만 하다는, 즉 企業의 内部能力에 대한 同社의 평가는 미국시장개척 및 라면의 주원료인 제분의 저렴한 구입이라는 戰略的 動機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한국교포의 고용증대를 통한 企業 Image제고와 현지법인관리의 容易性 등은 현지국특유의 입지우위요소에 해당되며, 이 외에도 美國市場을 통한 第3國으로의 수출증대 가능성 등이 立地優位要素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우위요소는 기업특유의 경쟁우위요소로 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企業은 제반 우위요소들을 결합하여 競爭優位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 海外直接投資를 한 것이다. 따라서 開途國企業의 對선진국 투자도 종합적인 『競爭優位의 틀』 속에서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설혹 現地에서는 경쟁우위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기업 전체로 보았을 때에 競爭力を 강화시켜 주는 유일한 수단이 海外直接投資라고 판단되면 투자는 이루어진다.

② 삼양식품(株)의 競爭優位創出은 충분한 事前調查에서 비롯되었다. 同社는 Project Team을 통해 製品需要를 정확히 파악한 후 製品多樣化政策을 추진하면서 설비투자도 증가시켜 나갔다. 다시 말해 浸透할 細分市場을 식별한 후 消費者의 Needs를 파악하고 라면이라는 표준화 제품을 창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기회를 창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同社가 미국시장에 진출한 것은 기업특유의 경쟁우위요소를 활용하겠다는 측면보다는 새로운 優位要素를 창출하겠다는 기업의 노력에서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작용한 것은 ①主原料인 제분의 현지구입으로 비용절감, ②국내에서 미국으로 원·부자재 수출, ③현지근로자들의 노력 등 이었다. 삼양식품(株)은 美國市場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中國에도 진출하여 現在 操業中이며 러시아에 대한 투자도 계획중이다. 同社는 統合시스템 차원에서 생산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戰略을 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汎世界的 戰略의 추진여부는 產業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現地指向의 經營活動을 전개하면서 汎世界的 Network를 형성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겠다.

미원(株)事例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事例에서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즉 경쟁우위는 제반 우위요소들이 投資動機에 따라 결합되어 창출되는 것이며 기업은 상대적으로 현지 경쟁기업보다 競爭優位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海外直接投資는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 競争優位의 決定要因

해외직접투자기업의 경쟁우위는 企業特有의 競争優位要因과 現地國特有의 立地優位要因이 投資動機에 따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이하에서는 144건(사례기업수로는 88개)의 事例分析에서 도출된 競争優位要因들을 정리한 다음에, 이들 要因이 경쟁우위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를 앞에서 제시한 事例分析節次에 따라 평가하고자 한다. 우선 產業別 事例分析에서 도출된 投資動機를 살펴본 다음에 경쟁우위요인들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投資動機에서는 무역규제를 회피하면서 既存市場을 보호하겠다는 방어적인 動機를 가진 투자가 많았다. 더불어 新市場을 개척하겠다는 적극적인 投資動機를 가진 企業들도 상당수가 있었다. 한편 現地國의 유리한 투자환경을 이용하겠다는 投資動機는 企業特有의 競争優位要因 및 現地國特有의 立地優位要因과 관련되어 있어 事例內容에 따라 적절히 분류하였다.

둘째, 企業特有의 競争優位要因에서는 투자대상국의 競争企業(現地企業 및 現地에 진출한 外國企業)보다 생산기술이 우수하거나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우위요소로 도출되었다. 다음으로는 現地에 적합한 生產施設과 母企業의 지원 등이 경쟁우위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現地國特有의 立地優位要因에서는 투자대상국의 產業構造와 관련하여 획득할 수 있는 우위요소가 많았으며, 이러한 우위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 투자대상국의 生產要素活用과 관련하여 획득할 수 있는 우위요소로는 ①풍부한 인력과 저렴한 인건비 수준, ②원·부자재의 현지조달 가능성, ③투자대상국의 기술 및 지식자원 이용 가능성, ④본사와 現地法人과의 연계활동가능성 등이었다. 이러한 立地優位要因은 국내의 환경변화에 대처하려는 기업의 投資動機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한편 現地의 產業構造와 보완관계를 이룰 수 있는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자대상국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立地優位要因가 경쟁우위를 형성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평가한 기업도 있다. 이러한 특징은 海外直接投資의 地域別·產業別 분포에서 뚜렷히

韓國製造企業의 海外直接投資

나타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투자대상국 정부의 지원이나 현지국의 수요조건이 경쟁우위요소로서 큰 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업은 投資對象國의 產業發達水準이 海外直接投資企業의 경쟁우위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開途國에 進出한企業은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원·부자재가 제한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品質 또한 낮아 경쟁우위형성에 逆作用을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現地의 經濟構造, 產業構造, 技術構造 등이 진출기업의 사업내용과 연계관계를 가지면 競爭優位는 획득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만간 새로운 전략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경쟁우위요소들을 종합하여, 이러한 優位要素들이 競爭優位形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표시한 것이 <표 2>이다.

<표 2>

海外直接投資企業의 競爭優位에 영향을 주는 要因들의 役割

구 분	음식 료 품	섬유 신 발	목 재	종 이 인 쇄	석 유 화 학	비 금 속 광 물	1 차 금 속	조 립 금 속	기 타
1. 투 자 동 기 요 인									
(1) 전략적 동기	+	+	+	+	+	+	+	+	+
(2) 행동적 동기	*	*	*		*	*	*	*	*
(3) 경제적 동기		*			*			*	*
(4) 재무적 동기									
↓									
1. 기 업 의 경 쟁 우 위 요 소									
(1) 경영자 및 근로자 관련 능력	*	*			*	*	*	*	*
(2) 생산 및 기술 관련 능력	*	+	+		*	+	+	+	*
(3) 마아케팅 관련 능력	+	+	+		+	+	*	+	+
(4) 원부자재 및 자금 조달 관련 능력	*	*			*	*	*	*	*
(5) 현지법인 관리 관련 능력	*	*	*	+	*	*	+	*	*
(6) 기업의 이미지 제고 관련 능력		*	*		*	*	*	*	

2. 현지국의 입지우위요소						*	*	*	
(1) 현지국의 생산요소 활용상의 우위	*	+	+			*	*	*	
(2) 현지국 정부의 지원		*	*			*	*	*	
(3) 현지국 수요조건의 우위	*	*	*	+	+	*	*	+	*
(4) 현지국 산업구조와 관련된 우위	*	+	*		*	*	*	*	
(5) 현지국의 기타 환경상 우위	*	*			*			*	*

주 : +는 강한 動機要因 또는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약한 動機要因 또는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역할은 하나 중요성은 크지 않다.

V. 韓國 海外直接投資企業의 競爭優位要因에 관한 差異分析

1. 調查設計 및 方法

本研究는 事例分析結果를 補完하면서 競爭優位要因들 간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투자대상국별, 투자산업별로 競爭優位要素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設問調查를 실시하였다.

設問紙는 競爭優位의 형성요인으로 事例分析에서 적용한 投資動機, 企業特有의 競爭優位要因, 現地國特有의 立地優位要因 등을 구체적인 項目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競爭優位要素는 既存研究 및 理論을 바탕으로 추출하였으며, 豊備調查를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設問調查는 1991년 8월중에 직접방문 및 우편조사로 진행되었다. 이 보다 앞서 시행한 豊備調查에서 30개의 설문지를 우편송부하였으나 거의 회수되지 않아, 우편조사의 경우에도 연고관계 등을 이용해 회수가 가능한 企業에만 송부하였다. 이와 같은 方法으로 회수한 設問紙는 80개가 넘었으나, 일부 항목에만 응답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67개의 표본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2. 競爭優位決定要因의 差異分析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企業들의 投資動機와 競爭優位의 源泉인 企業特有의 競爭優位要素 및 現地國特有의 立地優位要素는 투자대상국별, 투자산업별로 어떠한 差異가 있는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要因別 差異檢證

① 投資對象國別 競爭優位要因의 差異檢證

企業으로 하여금 競爭優位의 源泉을 탐색케하는 動因인 投資動機가 투자대상국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t-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투자동기에 대한 25개 항목중 5%有意水準에서 13개 항목, 10%有意水準에서는 3개 항목이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開途國에 진출하는 경우 先進國에 진출할 때에 비해 다음과 같은 동기가 보다 강력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差異를 보인 주요 動機는 ①저렴한 인건비 활용, ②현지사업확장 및 제3국 진출, ③현지국의 저렴한 임대료 및 공장부지 활용, ④국내母企業의 기술 및 노하우 활용, ⑤국내사업보다 海外事業의 投資收益이 높기 때문에, ⑥지리적 근접성 및 社會文化的 유대감, ⑦現地國의 外國人投資 우대정책, ⑧國內 경쟁기업들의 해외진출, ⑨국내 유휴설비의 판매 및 로얄티 수입 등이다. 반면에 先進國에 진출할 경우에는, ①현지국의 기술습득 및 정보이용, ②현지국의 원·부자재 활용, ③現地金融의 활용 등이 開途國에 진출할 때 보다 강한 動機要因으로 작용하였다.

投資對象國별로 企業特有의 경쟁우위요소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25개 항목중 7개 항목에서 有意한 차이가 났다. 선진국에 진출할 때 보다 開途國에 진출할 경우에는 競爭優位의 源泉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差異를 보인 主要 競爭優位要素는 ①現地國의 경쟁기업보다 우수한 生產技術, ②현지국의 경제수준에 적합한 生產 및 工程技術, ③현지국에 적합한 우수한 생산기술, ④생산 및 영업활동상의 오랜 경험, ⑤제품의 가격경쟁능력, ⑥현지국 정부의 지원 및 활용능력 등 이었다. 한편 先進國에 진출할 경

產 業 研 究

우에는 開途國에 진출할 경우와는 달리 國內 本社의 투자자금조달능력만이 경쟁우위요소로서 보다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投資對象國別로 現地國特有의 立地優位要素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입지요인에 관한 23개 항목 중 5% 有意水準에서 18개 항목이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선진국에 비해 開途國에 진출할 경우에는 ①필요한 人力의 현지조달, ②국내기술의 현지 활용, ③현지국을 통한 신규해외시장 개척, ④현지인의 근로시간 및 인건비 수준 등의 입지요인과 보다 중요한 競爭優位의 源泉으로 작용하였다. 반면에 先進國에 진출할 경우에는, ①社會間接資本施設, ②現地市場의 성장잠재력, ③현지시장의 규모, ④현지국의 기술 및 지식자원 이용, ⑤製品差別化에 대한 현지인의 욕구, ⑥國內企業의 수출증대, ⑦현지조달 원·부자재의 품질, ⑧원·부자재의 현지조달 가능성, ⑨현지금융의 이용 등이 競爭優位 형성에 보다 중요한 立地優位要素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投資對象國別로 투자동기와 기업특유의 경쟁우위요인 및 현지국 특유의 입지요인에 어떠한 差異가 있는지를 檢證해 보았다. 檢證結果 경쟁우위의 원천인 企業特有의 競爭優位要素와 現地國特有의 立地優位要素가 투자대상국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투자대상국별로 海外直接投資를 발생시키는 動機要因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②投資產業別 競爭優位要因의 差異檢證

投資產業別로 투자동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투자동기에 관한 25개 항목 중 5% 有意水準에서 12개 항목, 10% 有意水準에서는 2개 항목이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섬유·신발 등 成熟期 이후의 產業에서는, ①저렴한 인건비 활용, ②국내 경쟁기업들의 해외진출, ③현지사업확장 및 제3국 진출, ④국내사업 보다 해외사업의 投資收益 rate이 높기 때문에, ⑤현지국의 저렴한 임대료 및 공장부지 활용, ⑥지리적 근접성 및 사회문화적 유대감, ⑦국내 유휴설비의 판매 및 로얄티 수입, ⑧산업수명주기상 現地生產이 유리(규모의 경제 이용) 등이 成熟期 이전의 產業에서 보다 강력한 투자동기로 작용하였다. 한편 成熟期 이전의 產業에서는, ①신규해외시장 개척, ②현지국의 기술습득 및 정보이용, ③현지국의 원·부자재 활용, ④현지금융의 활용 등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投資產業別로 企業特有의 競爭優位要素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25개 항목 중 5% 有意水準에서 8개 항목이, 10% 有意水準에서 3개 항목이 有意한 차이를 보였다.

성숙기 이후의 산업은 성숙기 이전의 산업에 비해 ①현지국의 경쟁기업보다 우수한 생산기술, ②현지국에 적합한 우수한 生產施設, ③海外유통채널 및 既存 바이어와의 관계, ④경영총의 國際經營能力, ⑤국내 본사의 海外現地法人에 대한 지원, ⑥現地人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영관리능력 등을 경쟁우위 형성에 보다 중요한 要素로 평가하였다. 한편 成熟期 이전의 產業에서는 ①國內母企業의 국제적인 명성, ②기업의 이미지제고 능력 및 廣告活動 등을 成熟期 이후의 產業에서 보다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投資產業別로 現地國特有의 입지우위요소에 관한 差異檢證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입지요인에서 差異를 보인 항목은 5%有意水準에서 12개, 10%有意水準에서 3개였다. 成熟期 이후의 산업에서는 ①필요한 人力의 현지조달 가능성, ②國內技術의 현지활용, ③국내 本社와 海外現地法人과의 연계활동 가능성, ④현지국의 同一業種 競爭狀況 등을 成熟期 이전의 산업에서 보다 중요한 立地優位要素로 평가하였다. 반면에 성숙기 이전의 산업에서는 ①現地市場의 규모, ②현지시장의 성장 잠재력, ③國內企業들의 수출증대 가능성, ④원·부자재의 現地調達 가능성, ⑤현지금융의 이용, ⑥사회간접자본시설, ⑦현지국의 기술 및 지식자원 이용, ⑧현지조달 원·부자재의品質, ⑨제품차별화에 대한 現地人의 욕구 등이 보다 중요한 競爭優位의 源泉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投資產業別로 投資動機는 상이하며 競爭優位의 源泉인 기업특유의 경쟁우위요소와 현지국특유의 입지우위요소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要因그룹별 差異檢證

앞에서 海外直接投資企業의 投資動機와 競爭優位의 源泉인 기업특유의 경쟁우위요소 및 현지국특유의 입지우위요소에 대하여 要因別로 우위요소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이하에서는 要因그룹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①投資對象國別 要因그룹의 差異檢證

투자대상국별로 投資動機와 競爭優位의 源泉인 기업특유의 경쟁우위요인 및 현지국 특유의 입지우위요인에 대하여 要因그룹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15개의 要因그룹중 5%有意水準에서 9개, 10%有意水準에서 2개의 要因그룹이 차이를 보였다.

產 業 研 究

海外直接投資를 발생시키는 투자동기요인에서는 4개의 要因그룹중 3개의 要因그룹이 차이를 나타냈다. 開途國에 投資한 경우에는 先進國에 投資한 경우에 비해 行動的 動機와 經濟的 動機가 投資實行에 보다 큰 작용을 하였으며 戰略的 動機도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企業特有의 競爭優位要因에서는 6개의 要因그룹중 3개가 차이를 보였다. 개도국에 진출한 경우에는 선진국에 진출한 경우에 비해 ①경영자 및 근로자관련 능력, ②생산 및 기술관련 능력 등이 경쟁우위의 源泉으로서 보다 큰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先進國에 진출한 경우에는 원·부자재 및 자금조달 능력만이 開途國에 진출할 경우 보다 중요한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 평가되었다.

現地國特有의 입지우위요인에서는 先進國에 진출한 경우가 開途國에 진출한 경우에 비해 모든 要因그룹들이 경쟁우위의 원천으로서 보다 큰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검증결과는 競爭優位要因의 要素別 차이검증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대상국별로 投資動機는 상이하며 경쟁우위의 원천에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②投資產業別 要因그룹의 差異檢證

投資產業別로 要因그룹의 차이검증을 한 결과, 15개의 要因그룹중 5%有意水準에서 10개의 要因그룹이, 10%有意水準에서 1개의 要因그룹이 차이를 보였다.

海外直接投資를 발생시키는 投資動機要因에서는 4개의 要因그룹중 3개의 要因그룹이 차이를 나타냈다. 成熟期 이후의 產業은 이전의 產業에 비해 戰略的 動機, 行動的 動機, 經濟的 動機 등이 모두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강력한 동기요인은 성숙기 이후의 산업에서 海外直接投資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하겠다.

한편 競爭優位의 源泉인 企業特有의 競爭優位要因에서는 6개의 要因그룹중, ①경영자 및 근로자관련 능력, ②생산 및 기술관련 능력, ③企業의 現地法人管理能力, ④企業의 이미지 提高能力 등 4개 要因

그룹에서 차이를 보였다. 成熟期 이후의 產業에서는 이전의 산업에 비해 ①경영자 및 근로자관련 능력, ②생산 및 기술관련 능력, ③企業의 現地法人管理能力 등을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보다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반면에 성숙기 이전의 產業은 企業의 이미지 提高能力만을

성숙기 이후의 產業에 비해 보다 중요한 競爭優位의 원천으로 평가하고 있다.

現地國特有의 입지우위요인에서는 成熟期이전의 產業이 이후의 산업에 비해 ①현지국의 생산요소활용상의 우위, ②현지국 정부의 지원, ③현지국 수요조건의 우위, ④현지국 產業構造와의 연계에 따른 우위 등 4개 要因그룹 모두를 경쟁우위형성에 보다 중요한 입지우위요인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投資產業別 要因그룹의 差異檢證結果는 앞에서 살펴본 要素別 검증결과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投資產業別로 投資動機에 차이가 있을뿐만 아니라 경쟁우위를 형성하는 우위요인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投資對象國別・投資產業別 競爭優位要因의 差異檢證 및 判別分析

①投資對象國別・投資產業別 競爭優位要因의 差異檢證

이상의 檢證結果에서 보면 投資對象國別 및 投資產業別로 競爭優位要因에서 상당히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投資對象國別 및 投資產業別에 의해 나타나는 4가지 유형(開途國에 진출한 成熟期 이전의 產業, 開途國에 진출한 成熟期 이후의 產業, 先進國에 진출한 成熟期 이전의 產業, 先進國에 진출한 成熟期 이후의 產業)의 海外直接投資에서는 투자동기와 경쟁우위의 원천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하에서는 투자대상국과 투자산업에 따라 投資動機와 競爭優位의 源泉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ANOVA를 행하기로 하겠다. 投資對象國別・投資產業別 경쟁우위요인의 그룹간 차이에 관한 F 檢證結果는 다음과 같다. F 검증에서 海外直接投資를 발생시키는 投資動機要因은 1% 有意水準에서 행동적 동기와 경제적 동기가 그룹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쟁우위의 원천인 企業特有의 경쟁우위요인에서는 4개 항목이 차이를 보였다. 1% 有意水準에서 차이를 보인 항목은 ①경영자 및 근로자 관련 능력, ②생산 및 기술관련 능력 등 이었다. 5% 有意水準에서 차이를 보인 항목은 企業의 現地法人管理能力 뿐이었고, 10% 有意水準에서는 원·부자재 및 자금조달능력 만이 그룹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現地國特有의 立地優位要因에서는 모든 항목이 그룹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놓고 볼 때에 韓國企業이 海外直接投資에서 누릴 수 있는 競爭優位의 源泉은 投資對象國과 投資產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投資를 추진하게 된 動機 또한 상이하

다고 할 수 있겠다.

②投資動機와 競爭優位의 源泉에 따른 投資對象國 및 投資產業의 判別分析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企業의 투자대상국(開途國 또는 先進國)과 투자산업(國際競爭力이 成熟期 이후로 진입한 產業 또는 成熟期 이전의 產業)을 구분하여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投資動機와 競爭優位의 源泉인 企業特有의 경쟁우위요인 및 현지국 특유의 입지우위요인을 가지고 判別分析(Discriminant Analysis)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投資動機와 競爭優位의 源泉에 따른 投資對象國의 判別分析

投資對象國을 구분하여 주는 投資動機와 企業特有의 경쟁우위요인 및 現地國特有의 입지우위요인에 대한 判別分析結果는 〈표 3〉과 같다. 판별분석결과 도출된 판별함수의 正準相關係數는 0.8928로 높게 나타났으며 P-Value는 0.0000으로 1% 유의수준에서 有意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判別式이 실제의 집단을 얼마나 잘 分類해 주는가를 나타내는 Hit Ratio는 98.50%로 높은 수준의 豫測力を 보여주고 있다. 要因別 判別寄與度에서 보면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企業들의 투자방향이 開途國이나 先進國이냐의 여부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현지국 산업구조와의 연계(EEE4)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경제적 동기(CCC3), 生產 및 技術關聯能力(DDD2), 원·부자재 및 자금조달 능력(DDD4), 現地國의 수요조건(EEE3) 등의 순서로 영향력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영향요인을 標準化된 正準判別函數係數로 살펴보면, 現地國 產業構造와의 연계도가 높고 원·부자재 및 자금조달 능력이 우월하며 現地國의 수요조건이 고도화 될수록 先進國에 진출하고 있다. 반면에 生產 및 技術關聯能力이 우월하거나 現地國에서 규모의 경제나 製品差別化에 의한 우위를 누리겠다는 經濟的 動機가 강할수록 開途國에 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韓國製造企業의 海外直接投資

〈표 3〉

投資動機와 競爭優位의 源泉에 따른 投資對象國의 判別分析

正準 判別函數

Function	Canonical Correlation	Wilks' Lambda	Significance
1*	0.8928	0.2028	0.0000

分類表 (Classification Results)

실제집단	표본수	예측집단	
		1	2
1	46	46	0
2	21	1	20

* 정확하게 분류된 표본의 비율 (Hit Ratio) = 98.50%

要因別 判別寄與度

판별요인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계수
경제적 동기 (CCC 3)	-0.64592
재무적 동기 (CCC 4)	-0.28391
생산 및 기술관련 능력 (DDD 2)	-0.49629
원·부자재 및 자금조달 능력 (DDD 4)	0.47792
현지국 정부의 지원 (EEE 2)	0.31895
현지국의 수요조건 (EEE 3)	0.41187
현지국 산업구조와의 연계 (EEE 4)	0.65385

(ii) 投資動機와 競爭優位의 源泉에 따른 投資產業의 判別分析

投資產業을 구분하여 주는 투자동기와 기업특유의 경쟁우위요인 및 현지국특유의 입지우위요인에 대한 判別分析結果는 〈표 4〉와 같다. 판별분석결과 도출된 判別函數의 正準相關係

產 業 研 究

數는 0.6723으로 높다고 할 수는 없으나 P - Value는 0.0000으로 1% 有意水準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判別函數에 의해 67개 표본기업의 投資產業別 구분을 위한 예측 결과와 실제와를 비교해 보면, 國際競爭力이 成熟期 이후에 진입한 산업의 경우에는 41개 표본중 36개를 정확히 예측하였고, 國際競爭力이 成熟期이전에 있는 산업의 경우에는 26개 표본중 21개를 정확히 예측하여 Hit Ratio는 85.00% 이었다. 이 정도의 Hit Ratio라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豫測力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要因別 判別寄與度에서 보면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企業들이 속하여 있는 投資產業의 성격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현지국 정부의 지원 (EEE 2) 이었으며, 다음은 企業의 이미지提高能力 (DDD 6), 현지국의 기타 경영환경 (EEE 5), 경제적 동기 (CCC 3), 마아케팅 관련 능력 (DDD 3) 등의 순서로 영향력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영향요인을 標準化된 正準判別函數係數로 살펴보면, 현지국 정부의 지원이 많거나 企業의 이미지제고 능력이 우월할수록 成熟期 이후의 산업에서는 投資進出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반면에 現地國의 기타 경영환경이 유리하거나 마아케팅관련 능력이 우월한 경우에는 成熟期이전의 산업에서 投資進出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4)

投資動機와 競爭優位의 源泉에 따른 投資產業의 判別分析

正準 判別函數

Function	Canonical Correlation	Wilks' Lambda	Significance
1*	0.6723	0.5480	0.0000

分類表 (Classification Results)

실체집단	표본수	예측집단	
		1	2
1	41	36	5
2	26	5	21

* 정확하게 분류된 표본의 비율 (Hit Ratio) = 85.00%

要因別 判別寄與度

판별요인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계수
경제적 동기 (CCC 3)	0.41913
경영자 및 근로자관련 능력 (DDD 1)	0.31268
마아케팅관련 능력 (DDD 3)	0.41313
기업의 현지법인 관리관련 능력 (DDD 5)	0.26968
기업의 이미지 제고 능력 (DDD 6)	-0.61847
현지국 정부의 지원 (EEE 2)	-0.71799
현지국의 수요조건 (EEE 3)	-0.27969
현지국의 기타 경영환경 (EEE 5)	0.51451

(iii) 投資動機와 競爭優位의 源泉에 따른 投資對象國 및 投資產業의 判別分析

投資對象國別 및 投資產業別에 의한 判別函數는 요인그룹이 4가지 類型으로 나누어지므로 〈표 5〉와 같은 3개의 함수가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제 1함수 이외에는 유용성이 없으므로 제 1함수의 의미만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 1판별함수의 正準相關係數는 0.909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 有意水準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判別式이 실제의 집단을 얼마나 잘 분류해 주는가를 나타내는 Hit Ratio는 89.55%로 상당히 높은豫測力を 보여주고 있다. 제 1판별함수를 기준으로 판별기여도가 높은 요인을 살펴보면, 經濟的動機 (CCC 3)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현지국 산업구조와의 연계 (EEE 4), 생산 및 기술관련 능력 (DDD 2), 현지국 정부의 지원 (EEE 2) 등의 순서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投資動機와 競爭優位의 源泉에 따른 投資對象國 및 投資產業의 判別分析

正準判別函數

Function	Canonical Correlation	Wilks'	Significance
		Lambda	
1*	0.9090	0.0716	0.0000
2*	0.6870	0.4122	0.0005
3*	0.4683	0.7807	0.1679

分類表 (Classification Results)

실제집단	표본수	예측집단			
		1	2	3	4
1	35	33	2	0	0
2	11	3	8	0	0
3	6	0	1	5	0
4	15	0	0	1	14

* 정확하게 분류된 표본의 비율 (Hit Ratio) = 89.55%

要因別判別寄與度

판별요인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계수
전략적 동기 (CCC 1)	0.10883 -1.03283 0.64192
행동적 동기 (CCC 2)	-0.11036 0.55591 -0.09712
경제적 동기 (CCC 3)	-0.61296 -0.20751 0.03253
재무적 동기 (CCC 4)	-0.35734 1.20777 -0.43225
경영자 및 근로자 관련 능력 (DDD 1)	-0.19830 0.24912 0.46721
생산 및 기술 관련 능력 (DDD 2)	-0.52382 0.47956 -0.09214

판별요인		표준화된 정준판별합수계수	
원·부자재 및 자금조달 능력	(DDD 4)	0.35847	-0.29753 0.16584
기업의 이미지제고 능력	(DDD 6)	0.27315	-0.56159 -0.39498
현지국 정부의 지원	(EEE 2)	0.45090	-0.34000 -0.82670
현지국의 수요조건	(EEE 3)	0.33959	0.65262 0.22613
현지국 산업구조와의 연계	(EEE 4)	0.58160	0.34949 0.20183
현지국의 기타 경영환경	(EEE 5)	-0.02006	-0.04278 0.77453

2. 競争優位決定要因의 影響力 分析

海外直接投資企業이 누리는 競争優位는 제반 優位要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한편 海外直接投資의 動機化 過程에서 經營者의 태도와 의지는 競争優位의 源泉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하에서는 경쟁우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경쟁우위와 經營成果와의 관계를 살펴본 다음에 經營成果別로 경쟁우위의 원천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投資動機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檢證하고자 한다. 이어서 經營成果에 영향을 미치는 競争優位의 源泉과 投資動機들의 영향력 정도를 평가하기로 하겠다.

(1) 競争優位와 經營成果의 관계

海外直接投資企業은 기업특유의 경쟁우위요소와 현지국특유의 입지우위요소를 결합하여 戰略的인 競争優位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優位要素들을 활용하여 경쟁우위를 누릴 수 있느냐의 여부는 經營者의 態度와 意志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經營者로 하여금 環境變化에 반응토록 촉매역할을 하는 投資動機要因이 해외직접투자결정에 끼치는 영향력은 크다는 것을 事例分析過程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海外直接投資企業의 경쟁우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는 ①海外直接投資를 발생시키는 투자동기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더불어 海外事業을 성공으로 이끌수 있는 競争優位의 源泉인 企業特有의 競争優位要因과 現地國特有의 立地優位要因들이 측정가능한 객관적인 지표로 작성될 수 있어야 하며, ②競

產業研究

競爭優位가 상대적인 概念이기 때문에 여타의 競爭產業이나 企業과도 비교될 수 있는 競爭的成果測定基準이 마련되어야 하고, ③自社內에서도 海外直接投資의 기여도가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計量化 시킬 수 있는 競爭優位要因은 극히 적다. 뿐만 아니라 狀況適應의in 戰略的 代案으로 海外直接投資가 행해졌을 경우에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競爭優位의 평가는 競爭優位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競爭優位를 經營成果와 관련하여 파악해 보려는 이유는 經營成果別로 경쟁우위의 원천과 투자동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方向에 대한 전략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함이다. 이하에서는 經營成果가 양호하다고 평가한 기업과 저조하다고 평가한 기업간에 差異를 보이는 競爭優位의 源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아울러 投資動機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2) 經營成果別 競爭優位要因의 差異檢證

經營成果가 양호하다고 평가한企業과 저조하다고 평가한企業間에 경쟁우위를 형성해 주는 優位要因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企業特有의 競爭優位要因에서는 마아케팅관련 능력만이 10% 有意水準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경영성과가 양호하다고 평가한企業이 저조하다고 평가한 기업보다 마아케팅관련 능력을 보다 중요한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現地國特有의 立地優位要因에서는 現地國 產業構造와의 연계에 따른 우위만이 5% 유의수준에서 差異를 보이고 있으며, 경영성과가 양호하다고 평가한 기업이 저조하다고 평가한 기업에 비해 이 優位要因을 보다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經營成果別로 경쟁우위요인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海外直接投資가 최근 들어 급증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財務成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데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海外直接投資가 경쟁우위의 획득결과로서도 이루어지지만 새로운 경쟁우위의 창출 또는 既存 경쟁우위의 유지·보완을 위한 수단도 된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진정한 의미의 經營成果는 現地法人 중심의 財務成果 보다 企業전체로서의 效率性을 측정하여 평가하여야 되는데, 이러한 成果測定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성과측정을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韓國製造企業의 海外直接投資

(3) 經營成果에 影響을 주는 要因의 判別分析

海外直接投資企業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要因을 파악하고자 投資動機要因, 기업特有의 競爭優位要因 및 現地國特有의 입지우위요인을 가지고 判別分析을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Hit Ratio가 73.84%로 예측력이 높다고 볼 수는 없으나 判別有意度가 높아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競爭優位要因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判別寄與度가 가장 높은 것은 현지국 산업구조와의 연계에 따른 우위요인 (EEE4) 이고, 다음은 생산 및 기술관련 능력 (DDD2) 이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경쟁우위형성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지 經營成果의 차이로서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이들 要因들이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現地國 產業構造와의 연계도 (EEE4) 가 높은 海外直接投資일수록 經營成果는 양호하며 더불어 企業特有의 競爭優位要因인 생산 및 기술관련 능력 (DDD2)이나 마아케팅관련 능력 (DDD3) 등이 우수할수록 경영성과도 좋다는 것이다. 반면에 財務的 動機 (CCC4) 가 강하거나 現地國의 일반적인 경영환경 (EEE5) 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투자를 실행한 海外直接投資企業일수록 경영성과는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표 6〉

經營成果別 競爭優位要因에 대한 判別分析

正準 判別函數

Function	Canonical Correlation	Wilks' Lambda	Significance
1*	0.5082507	0.7416813	0.0032

分類表 (Classification Results)

실제집단	표본수	예측집단	
		1	2
1	29	22	7
2	36	10	26

* 정확하게 분류된 표본의 비율 (Hit Ratio) = 73.84%

産業研究

要因別判別寄與度

판별요인		표준화된정준판별함수계수
재무적 동기	(CCC 4)	-0.52351
생산 및 기술관련 능력	(DDD 2)	0.52817
마아케팅 관련 능력	(DDD 3)	0.48369
현지국 산업구조와의 연계	(EEE 4)	0.81855
현지국의 기타 경영환경	(EEE 5)	-0.41385

이러한 상황은 既存理論에서 제시하고 있는 競爭優位要因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나, 재무적 동기와 현지국의 기타 경영환경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투자한 경우에 經營成果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企業의 海外直接投資가 아직 초기단계로 競爭優位의 源泉이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예견될 수 있다. 즉, 現地金融活用이나 海外生產을 통해 제품다양화 및 위험분산을 기하겠다는企業의 당초 계획이 차질을 보임에 따라 경영성과에 기여하는 競爭優位의 源泉이 오히려 약화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開途國에 진출한 경우 外國企業이 現地金融을 이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며 위험분산을 위한 多角化戰略 또한企業에 부담만 될 가능성 이 크다고 하겠다.

VI. 結 言

本研究의結果, 우리나라企業의 海外直接投資는 투자대상지역과 투자산업에 따라 投資動機가 다르며 현지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수 있는 競爭優位의 源泉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인 投資地域의 집중성과 投資產業의 편중성을 설명하고, 그 이유를 要約하기로 하겠다.

企業이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生產基地를 海外로 이전하는 데에는 몇 가지 動機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企業의 投資動機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은 대부분 戰略的 動機에 따라 투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戰略的 動機는 開途國은

韓國製造企業의 海外直接投資

물론 先進國으로도 投資가 이루어지게 하는 動因이었다. 開途國에 진출한 경우에는 現地의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하여 價格競爭力を 유지하고 더불어 先進國의 貿易規制도 회피할 수 있는迂迴輸出基地를 확보하겠다는 動機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動機는 人件費 上昇, 機能人力 確保의 어려움, 先進國의 對韓 수입규제 강화 등 國內外 環境變化에 따른 企業經營의 현실적인 애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先進國에 진출한 경우에는 既存輸出市場을 보호하고 더불어 新市場도 개척하겠다는 동기가 대부분 이었다. 이 외에도 先進國의 기술습득 및 시장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動機도 강하였다.

이처럼 投資對象地域에 관계없이 投資가 戰略的 動機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은 同一하였으나 行動的 動機와 經濟的 動機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開途國에 진출한 경우에는 행동적 동기와 경제적 동기가 보다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國際競爭力이 성숙기에 들어선 產業分野의 투자에서 이러한 동기가 강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國제경쟁력이 성숙기에 들어선 노동집약적 산업의 海外直接投資가 開途國에 집중되는 현상을 설명하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海外事業을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는 競爭優位의 源泉을 보면, 開途國에 진출한 경우에는 現地의 競爭企業보다 우수한 生產技術과 生產施設이 중요한 경쟁우위의 원천이었으며 先進國에 진출한 경우에는 원·부자재 및 자금조달능력 등이 중요한 競爭優位要素였다. 특히 國際競爭力이 성숙기에 들어선 產業分野의 投資에서는 생산 및 기술관련능력이 중요한 競爭優位의 源泉이었으며, 이러한 競爭優位要素가 現地國의 產業構造와 연계를 맷음으로써 보다 강력한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經營成果에 영향을 주는 要因으로 생산 및 기술관련능력, 마아케팅능력 그리고 현지국 산업구조와의 연계도등의 영향력이 가장 높다는 判別分析結果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를 유형화 하면 競爭優位活用型, 競爭優位維持型, 競爭優位補完型, 競爭優位創出型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쟁우위활용형은 企業特有的 경쟁우위요소를 바탕으로 現地國特有的 입지우위요소를 적절히 활용하여 경쟁우위를 누리겠다는 海外直接投資로 開途國에 진출한 성숙기 이후의 투자는 대부분 이에 속한다고 하겠다. 한편 先進國에 진출한 성숙기 이전의 產業은 크게 보아 競爭優位創出型의 海外直接投資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投資는 現地國의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여 새로운 경쟁우위를 창출하려는 목적에서 진출한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에 진출하여 기업특유의 競爭優位를 자

產業研究

체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현지국특유의 유리한 투자환경과 결합함으로써 경쟁우위를 창출한 경우도 많다.

한편 競爭優位補完型과 競爭優位維持型은 투자대상국이나 투자산업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직접투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개도국에 진출한 성숙기 이후의 산업도 상당수는 이러한 유형의 해외직접투자이다. 특히 OEM 방식의 수출을 주로 하던 기업들은 국내의 人件費 상승 등으로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人件費가 저렴한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옮겨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해외직접투자를 하였다. 競爭優位補完型은 국내에서는 부족한 필수 원·부자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경쟁우위를 지속시키려는 투자로 자원확보를 위한 해외직접투자는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類型化가 갖는 의의는 해외직접투자기업이 목표하고 있는 경쟁우위의 내용과 본원적 전략의 채택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느냐를 평가해 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 저원가전략을 채택하거나 또는 차별화전략을 채택하는 경우에 기업목표와 관련하여 경쟁우위의 원천을 파악하고 경쟁우위의 성격을 확인함으로써 지향해야 할 전략적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國內文獻〉

- 金基永,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合作投資 및 單獨投資)와 技術輸出戰略에 關한 研究”, 延世大學校, 『產業과 經營』, 1983. 8.
- 金先植, 海外子會社의 成長類型 및 撤收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9.
- 閔相基, 해외직접투자이론모음집(IV), 1990. 1.
- _____, “韓國製造企業의 海外直接投資”, 『인제 黃炳暎博士 華甲記念論文集』, 1984.
- 柳浩贊, 우리나라 海外投資의 現況과 活性化 支援方案研究, 韓國輸出入銀行 海外投資研究所, 1989.12.
- 全用旭, “Market Structure and Internationalization Behavior of Firms : The Case of the Korean Consumer Electronics Industry”, 1988年度 春季學術研究發表會, 『發表論文集』, 韓國經營學會, 1988. 5
- 鄭求鉉, 國際經營學, 法文社, 1987.
- 趙東成, 國際經營學, 經文社, 1989.
- _____, “국가간의 國제경쟁력에 關한 연구” – 한국산업을 중심으로 –, 『經營論集』, 서울大學校 經營研究所, 1989. 6.
- 趙東成·金炳淳 共著, 韓國企業의 國際經營事例, 經文社, 1986.
- 池龍熙, 中小企業 海外投資의 活性化 方案, 『中小企業을 위한 海外投資情報』, 中小企業振興公團, 1988. 1.
- 黃振性 外, 製造業 海外投資 中長期推進計劃을 위한 研究, 韓國貿易協會, 1989. 10.
- 한국은행 외환관리부, 해외투자 현지법인 현황, 1990. 12. 31.
- _____, 해외투자 통계연보, 1989., 1990., 1991.

〈外國文獻〉

小島清, 日本の海外直接投資: 経済學的 接近, 文眞堂, 1985.

Calvet,A. L., "A Synthesi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ories and Theories of the Multinational Firm",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pring / Summer, 1981.

Casson, M. , *Alternatives to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 Macmillan, 1979.

Dong Sung Cho and Porter, M. E. , "Changing Global Industry Leadership : The case of Shipbuilding", in M. E. Porter (ed.), *Competition in Global Industrie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86.

Dunning, J. H. ,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 George Allen & Unwin, 1981.

_____, "Explaining Outward Direct Investment of Developing Countries ; in Support of the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in K. Kumar and M. G. McLeod (ed.), *Ibid*, 1981.

_____, The Eclectic Paradigm of International Production : A Restatement and Some Possible Extens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pring, 1988.

Hood, N. and Young, S. ,*The Economics of Multinational Enterprise*, Longman Group Ltd. , 1979.

Kojima, K. and Ozawa, T. , "Micro and Macro – Economic Models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 Toward a Synthesis",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25, June, 1984.

_____, "Toward a Theory of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Dynamic Comparative Advantage",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26, December, 1985.

Lall, S. and Streeten, P. , *Foreign Investment, Transnationals and Developing Countries*, London : Macmillan, 1977.

韓國製造企業의 海外直接投資

Lecraw, D. J. , "Internationalization of Firms from LDCs : Evidence from the Asian Region, " in K. Kumar and M. G. McLeod (ed.), *Ibid*, 1981.

Wells, L. T. Jr. , "The Internationalization of Firms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T. Agmon & C. P. Kindleberger (ed.) , *Multinational from Small Countries*, The MIT Press, 1977.

_____, *Third World Multinationals : The Rise of Foreign Investment from Developing Countries*, The MIT Press, 1983.

_____, "Foreign Investors from the Third World" in K. Kumer and M. G. McLeod (ed.) , *Ibid*, 1981.

